

성도의 벗 1

1974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벗

1974년 1월호 

순서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102 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 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 회사 유 건수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 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참다운 교회-선교사 교회	1	리그랜드 리차즈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 지금은 준비할 시간	4	스펜서 더블류 킴볼
줄리 왕	7	말란 알 잭슨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의 인터뷰: 선교 사업에 관하여	8	브라이언 켈리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12	윌포드 우드럽
교회를 통해 본 위대한 선교사들	14	레오날드 제이 애링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함께 나눔	18	렉스 디 피니가
사도가 어린이에게 주는 말씀	21	보이드 케이 팩커
일어나 걸으시오	22	
해마	24	
심심풀이	25	
마닐라의 꽃장수	26	아그네스 엠 파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부	29	
예언자로 부터의 부름	30	린다 샬리
나의 개종	32	하트만 렉터 이세
유대의 넓은 들에	35	브르스 알 맥콩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 느냐? :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39	매리온 디 행스
인간의 자유의지	42	존 에이치 반덴버그
선교부장단 메시지	46	
내 외 소식	47	

정가 1 권 10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성도의벗

1974년 1월호 성도의벗 제 10권제 1호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린 브라이트 그림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주님 자신이 이 지상을 방문하여 요셉 스미스에게 경륜의 열쇠를 맡긴 고대 예언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온 세상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

리가 알리지 않으면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0: 14-15)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음 날,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한 자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사도행전 3: 19-21)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된 만유의 회복을 주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배적인 교회에서는 구세주의 시대로부터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배적인 교회의 잘못을 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구세주는 만유가 회복되기 전에는 재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회복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전쟁, 질병, 지진, 기근 등이 이 세상을 휩쓸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신 다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 14)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것처럼 많은 소위 기독교회 중에 과연 왕국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사람으로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복음이 개혁되었다든가 복음이 계속되었다는 것보다는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에 관한 성구는 많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요한이 밧모섬에 추방당했을 때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 1) 주님이 돌아 가시고 3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또한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계 13: 7 참조) 한 사람도 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의 완전한 배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14: 6 참조) 이를 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지상에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면 영원한 복음을 가져올 천사가 거할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개혁이 아닌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이 점은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은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장과와 박수를 불렀으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난히 크고 작은 사람들이...
멀리서 자기가 꿈에서 본 사람들을 보았
습니다.

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
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다니엘 2:28)

왕에게 말일에까지 계속될 왕국의 흥망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
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
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다니
엘 2:44)

이는 개혁이 아닌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에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세상 곳곳에서 한 푼의 보
수도 받지 않고 혹은 자비로, 혹은 사랑하는 사람 또
는 친구의 도움으로 2년 이상을 봉사하는 선교사를
17,000명이나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
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

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17:16-17)

우리의 메시지에, 선교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
는 사람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에게...그
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처럼 이 복음은 모
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972년 한 해 동안의 개종 침례자의 수는 약 십만
에 이릅니다.

이 복음은 악한 자는 선한 자로, 선한 자는 더 선
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최근에 개종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저를 안락으로 변하게 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꿈이나 기타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
을 진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할 사람은 헤
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아내의 할아버지는 남부
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날 밤 유난히 크고 작은 사
람들이 카토오 바강 쪽에서 자기를 찾아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줄 값진 것을 갖고 있
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중일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

가는 길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자기가 꿈에서 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선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 손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화란에서 두 번 선교사로서 일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때에 우리 선교사들은 다른 교회의 회원을 많이 개종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사를 사랑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도 물론 모임에 같이 참석하자고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선교사들은 그를 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는 거짓 선지자요 기만자이며,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말을 전부 쏟아놓고는 집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잠자리에는 들었으나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다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선교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찾아가 물론경 한 권을 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읽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나 자신도 그와 함께 자주 공부도 하였고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목사였던 사람이 일어나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요 복음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증을 듣노라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관리 감독으로 일하던 때의 일입니다만 아주 훌륭한 자매가 아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접견을 부탁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녀는 구라파와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약간 누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선교사로 일하는 아들이 돌아오면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부름만 받게 되면 아들에게 보낼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감독으로 있을 때, 제과점에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여 아들 셋을 선교사로 내보낸 어머니를 칭찬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한 아들은 후에 선교부장이 되었으며 다른 두 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선교사로 내보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회원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선교사를 가지 못하는 젊은이를 돕기 위하여 선교사 기금을 헌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친구 중에도 이러한 헌금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부가 된 자매는 이미 여러 명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친척 중에는 한꺼번에 열 명씩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사실을 부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부부가 그 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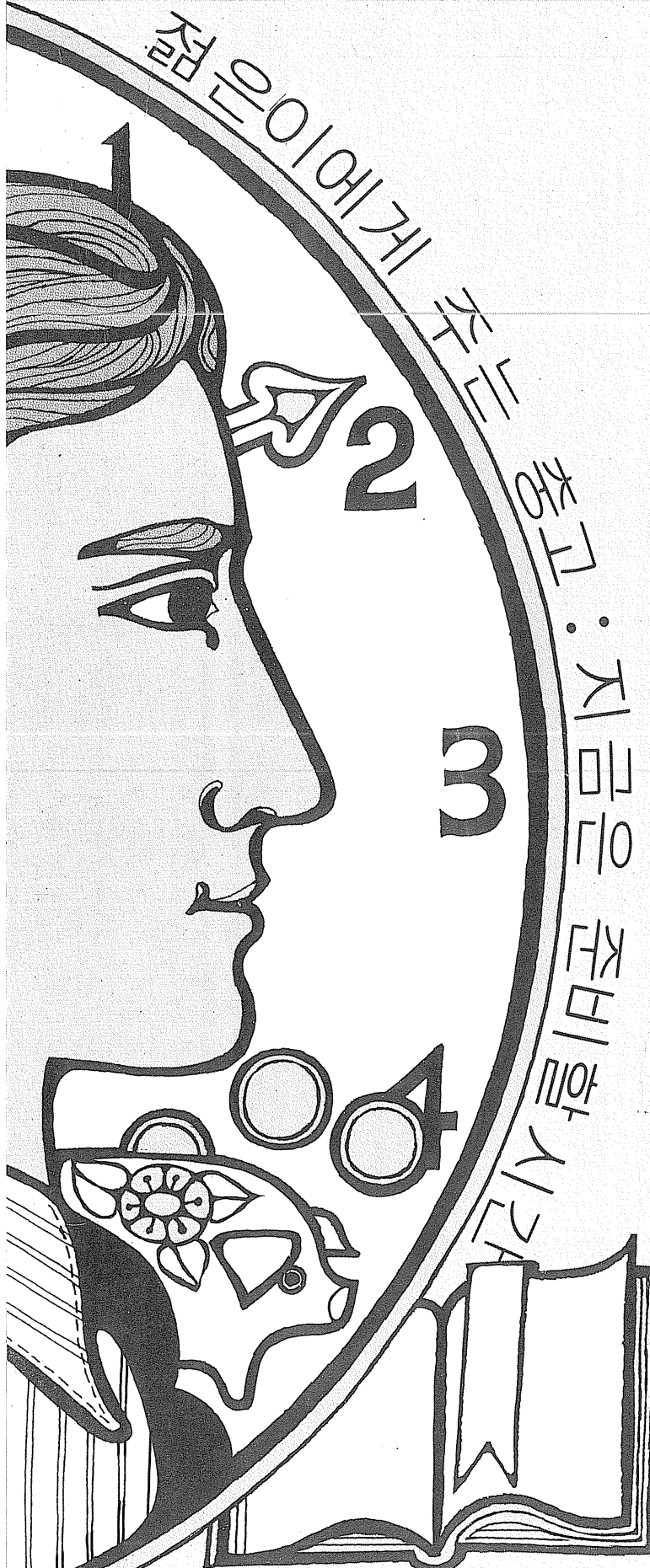
얼마 전에 어떤 대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나는 학교 선생님께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속에는 선교사가 한 달 동안 쓸 돈이 들어 있었으며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보내 드릴 터이니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이를 접견하다가 그의 양친이 모두 천주교 신자이나 아들을 위해서 선교사 기금으로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1971년에 선교 사업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이를 읽은 14세 소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14세로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으나 지금 당장 집에서도 가능한 선교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즉 주변에는 비회원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친구나 부모님에게 교회에 같이 참석하자고 청하면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썼습니다.

몇 주 후에 나는 와드의 아론 신권 상향회의 청녀 회장으로 일하는 이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며, 감독님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글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여 결국은 침례받을 날까지를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말씀은 세상 사람 모두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경전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을 다스리시게 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밖에는 받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니 물론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꾸뚝하고 유능한 선교사냐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성별된 선교사냐?” 이는 여러분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

젊은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들이 높고도 영광에 가득 찬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12살부터 18살까지의 젊은 청년의 수가 165,231명이고 여자의 수도 이와 비슷하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만일 이들 젊은이가 합당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는 젊은 남녀, 부부를 포함하여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3만에서 4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일이 특권이요 기회임에는 틀림없으나 동시에 엄숙한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두뇌 신체상의 기능, 지력, 청력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구한 세대가 쌓아 온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는 현재의 역사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140년 이상을 갖은 고초와 희생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신앙과 지식은 오랜 기간에 걸친 선교사업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써만 가능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준비를 갖춘 젊은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선교 사업에 임하겠다는 의욕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강제성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권을 받고 십일조를 내며 신전에서 결혼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은 모두 하여야 하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을 '상'에 전파해야 하며,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사람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상을 채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88 : 81)

따라서 이 엄숙한 책임과 특권에 대비하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철자를 익히며 구구법을 암기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젊은이는 생애의 위대한 사업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유년 및 청년 시절의 나날을 청년 시절의 선교 사업과 삶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의 준비 상태는 다음 세 분야에 대한 노력이 크게 좌우됩니다.

1.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합당하게 간직하며 세상서 모든 죄에 물들지 않는다.
2.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준비한다.
3. 가능한 한 자신의 부담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있도록 재정적인 준비를 한다.

1. 도덕적인 삶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요람으로부터 선교사로 일하게 될 때까지 복음의 기본 원리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가정 교육, 가정의 밤, 부자 관계, 기타 학습 훈련을 통하여 악한 일을 해보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적어도 어린 시절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악을 극복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신을 지켜 커가면서 감독을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만나서 자신은 욕망, 충동, 걱정을 다스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합당치 못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감독, 스테이크 부장, 총관리 역원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한결같고도 참다운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용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의 참다운 뜻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잘 해보겠다는 의욕 이상의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합당한 절차에 따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엘마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영원한 영혼의 생명은...” (엘 42 : 16)

회개를 하기 전에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데, 참다운 의미에서의 죄책감을 느끼면 정신, 영혼, 심지어는 육체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신에게는 불결한 흠집이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2. 우리는 경전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배움으

로써 자신의 간증을 강하게 하여 남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준비되면 두려워하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조 조직에서, 세미너리와 종교 학원에서, 가정의 밤에서 배운 모든 교훈이 젊은이들을 준비시켜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훈련을 쌓아야 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교리, 또는 조직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알맞는 경전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올바르게 배울 수 있으며, 청년기에 교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다른 사람보다 학업에서 우수해야 하는데 몇몇 젊은 청년들은 교회의 책임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오직 학교 공부에만 정신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공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선교사의 연령에 달했으나 복음의 면에서나 다른 면에서나 무지하다면 이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19세가 된 청년은 그의 생활, 표준을 재조정하지 않고도 지금까지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서 선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남자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선교사 기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모든 장래의 선교사가 태어날 때부터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저금 통장이나 저금통을 주어 돈이 생길 때마다 모두 또는 일부를 선교사 기금으로 저축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

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선교사 기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소년은 항상 장차 받게 될 선교사의 부름을 상기하게 되며,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얻거나 잡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의 만족만을 취하려는 이기심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자기의 것은 모두 자기가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는 평생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10대에서 개종한 청년에게는 저금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경제적 수준이 낮고 일할 기회가 극히 제한된 농촌에 살고 있는 경우라도 이 방법을 취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이차적인 방법은 직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저축 방법이나 가족의 도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부흥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력이 극히 싸거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므로 선교사 기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지방부, 와드, 지부, 스테이크, 선교부 산하 신권 정의회는 선교사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교회 당국은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금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과 많은 청년 및 부부는 선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 선교사는 선교 사업이라는 위대한 프로그램을 충실하고 효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㉔

줄리 왕

대만 선교부의
말란 알 잭슨 씀

줄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줄리는 신앙이 깊은 소녀이다. 그녀는 15세의 어린 소녀이지만, 온 회중을 교회에 모으는 주님의 도구였다. 그중 50명이 1973년 4월 1일에 침례를 받았으며 나머지 교구인 이백여 명이 곧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줄리의 아버지 왕 티엔 태는 18년 전에 그의 사업을 청산하고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보내기로 결심했다. 사업을 청산하여 얻은 돈으로 그는 남부 대만의 케리아오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지었다. 그후 곧 이어 교회 뒤에 집도 지었다. 그곳에서 줄리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1972년 5월, 대만의 카오슝의 거리를 걷던 줄리는 행인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있는 두 사람의 젊은 외국인을 보았다. 그녀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는 그 종이를 받고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카오슝 지부 앞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구도회 소개엽서가 있었다. 줄리는 어려서부터 복음 속에서 자라온 소녀였다. 그녀는 이 회복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영의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 엽서를 보내자 즉시 장로들이 그녀를 방문하였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순간에 줄리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침례 받기를 원했다.

줄리의 아버지는 딸의 요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딸을 침수로 이미 침례를 주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줄리가 그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좀더 이야기하자 그도 역시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1973년 4월 1일 줄리는 부모님과 케리아오 교회의 교인 62명과 함께 카오슝 예배당에 왔다. 그날 선교부장에게서 침례를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줄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또한 그녀가 진실로 사랑하는 48명의 회원이 침례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줄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줄리는 신앙이 깊은 소녀이다. 그녀가 다른 교회에 속하려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녀에게는 그 이유와 자기의 간증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15세의 어린 소녀의 힘, 용기, 그리고 간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교회의 회원 모두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오게 되었다. 줄리가 교회에 입교한 지는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익혀 왔다. 그러나 우리가 줄리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선교사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는 선교사이다! 우리로 인하여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침례 받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앙과 용기를 갖고, 계명을 따르면서 간증을 전하자. ☉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의 인터뷰 : 선교사업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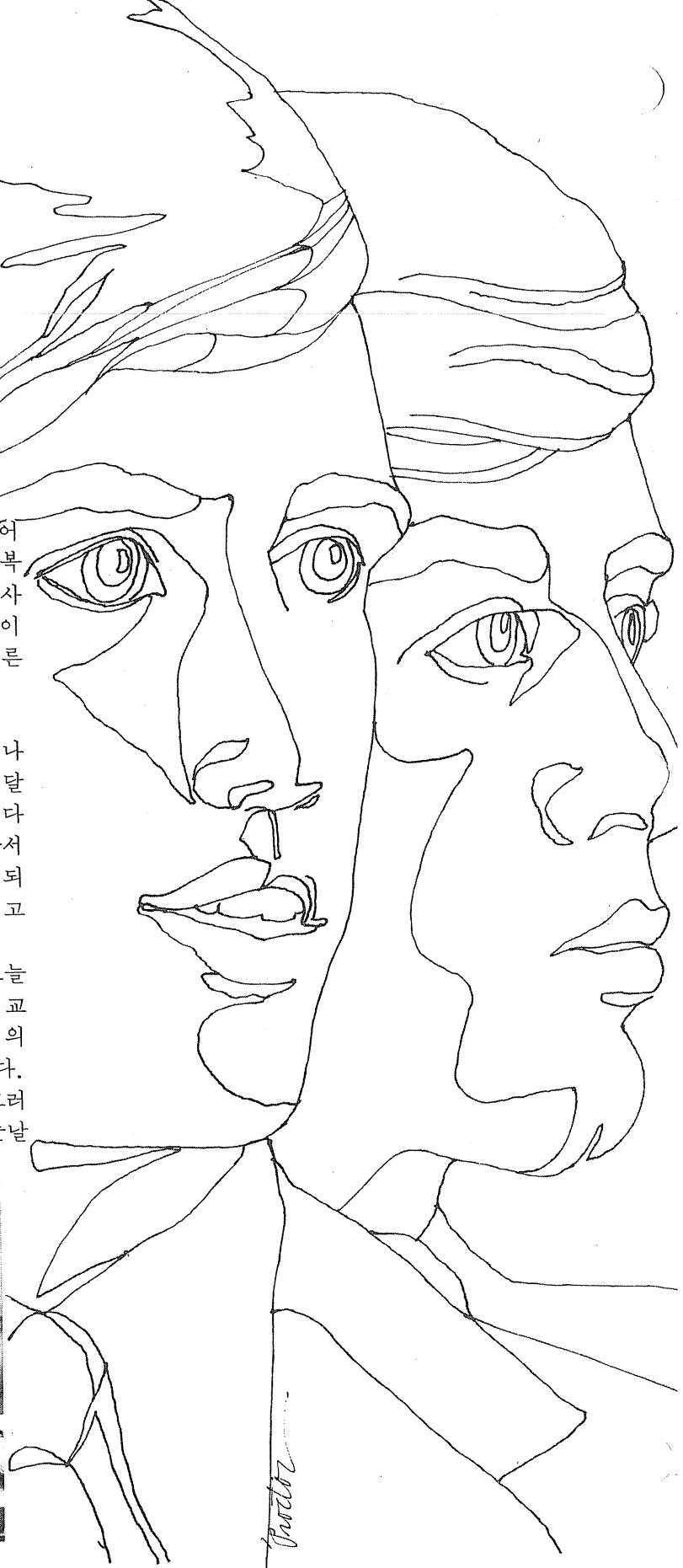
편집인 브라이언 켈리 씀

질문 :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 사업의 어려움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개심시킨 훌륭한 선교사에 대하여도 누차 들어왔습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했던 자세와 오늘날의 자세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힝클리 장로 :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태도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면은 언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은 교회 조직을 앞장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경 초판이 발행되자 이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가르치고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초기를 전성기라 하고 오늘날을 쇠퇴기라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좀더 자세히 보면 큰 성과를 거둔 초기의 선교사들 역시 큰 실망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에 많듯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질문: 과거 선교 사업의 결과와 오늘날의 결과를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힝클리 장로: 대체로 말해서 과거보다는 현재 선교 사업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과거에 많은 개종자를 입교시켰던 지역이 오늘날 현저하게 적은 수로 줄어드는가 하면 거의 개종자가 없었던 지역이 기이할 정도로 활발히 선교 사업이 진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선교사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경험하게 될 똑같은 경험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힝클리 장로: 메시지는 항상 불변합니다. 반대자들은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선교 사업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받는 기쁨의 보상은 어떤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고와 희생과 시간과 모든 방법을 아낌없이 들여 가르칠 만한 가치있는 것입니다.

질문: 대체로 보아 현재 선교사들이 과거의 선교사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힝클리 장로: 물론 나는 교회 최초의 선교 사업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선교 사업을 하였고 그 이전의 일은 단지 서적을 통하여 알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젊은 남녀를 볼 때 그들은 내가 4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의 선교사들보다 현신적이며 잘 준비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질문: 오늘날도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힝클리 장로: 내 생각으로는 오늘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부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향상되었습니다. 40년 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고집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포용력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교파에서는 그들 회원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므로 회복된 복음에 곧 반응을 보입니다.

질문: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은 어떠한가요?

힝클리 장로: 일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데 특히 북미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 무지에서 비롯된 핍박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특별한 지역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기독교 교리에 성실하고 신앙이 깊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강조하는 가정의 중요성에 깊이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새로이 인식하게 된 것에 대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힝클리 장로: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책을 읽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자꾸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성도가 증가되므로 교회는 점차로 널리 알려집니다. 건축 프로그램도 한 가지 방면에서 기여하였습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었을 때만 해도 교회 건물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단 하나의 예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당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견해를 향상시켰습니다. 회원과 선교사가 그들의 친구나 구도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인 것입니다. 더우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우리의 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므로 더욱 호감을 얻게 됩니다.

질문: 선교 사업에 있어서 절차상의 변동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까?

힝클리 장로: 별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이 회원들에게 새로이 강조되었습니다. 신권 협의회에서는 회원들로 하여금 구도자를 찾는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게 하여 선교사들이 그들 구도자를 성심껏 가르칠 수 있도록 원동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교 기구란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주지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탁월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 능력있는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훌륭한 시금석이 됩니다.

질문: 오늘날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힝클리 장로: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선교 사업에 전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간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선교 사업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근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세주 당시로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누구

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선교 사업에 적절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힘과 능력과 인도를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듯이 선교사의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나태의 암흑, 죄악의 암흑, 음란의 암흑, 두려움의 암흑 등 선교 사업을 저해하는 모든 암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힉클리 장로: 모든 사람이 복음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교 사업이란 고되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려면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강해야 합니다. 복음 선교사로 나가서는 안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교회 회원은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독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선교사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복음을 가르치기에 보다 훌륭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자매도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힉클리 장로: 자매 선교사들도 놀라운 정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효과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업이란 신권의 책임이며, 따라서 신권 지도자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젊은 여성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 사업은 주님의 집에서 훌륭한 형제와 결혼하여 훌륭한 가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간의 자매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실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질문: 선교 사업이란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년간이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깊은 것은 쉽게 또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힝클리 장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 사업이란 한번씩 해볼 만한 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외면하는 세계로 뛰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갖가지 기후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겸손 이외에 끊임없는 적응과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뿐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너무도 가치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수양, 겸손 등과 같은 성품을 지녀야 하며, 그러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선교 사업인 것입니다.

질문: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가족이나 친지들은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힝클리 장로: 우선 집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편지를 잘 쓰지 못하는데, 편지를 정규적으로 받지 못하는 선교사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대개 일주일에 한 통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선교사의 사기를 해칩니다.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선교사는 마음을 집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잦은 편지는 선교사에게 심한 어려움을 더해 주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적어 보내는 편지는 선교사의 사기를 그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교사를 가족으로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거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적어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는 선교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줍니다.

질문: 친구들은 어떻게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힝클리 장로: 선교사는 마땅히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장로님은 선교사이었으며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선교사인 아들을 대하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힝클리 장로: 그 기분은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오는 편지를 고대하지요. 아들이 봉사하면서 겪은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기쁨에 잠기게 됩니다. 아들이 선교사라는 사실은 우리 남은 가족의 자랑입니다.

질문: 선교 사업은 개인의 남은 일생에 훌륭한 영성도의 벗 1974년 1월호

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선교사로 봉사하실 때 배우신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힝클리 장로: 영을 받아 일을 하는 선교사라면 누구나 많은 것을 배우고, 힘쓰기만 하면 일생을 통하여 가장 값진 것이 될 여러 가지 성품을 개발시킵니다.

자기 수양을 개발합니다. 청년에게서 이보다 더 바람직한 성품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는 일의 중요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배웁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만나 말하는 태도와 능력을 배웁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안을 극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창의력과 풍부한 기략 등을 발전시킵니다.

이들은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게 됩니다. 헌신과 비이기심이 이들의 성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양, 태도, 지식이 이들의 일생을 축복되게 하며 이들 주위의 사람에게 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질문: 지금까지 선교사들과 일을 해 오시면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데 보다 새롭고도 기술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개선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힝클리 장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나 확실히 그러하며 이는 성신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움을 발전시켜야 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는 선교 사업이란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진실한 간증을 드리는 것이라는 분석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 간증은 영에 의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개심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이나 구도자를 찾는 방법에는 새로운 방법이 있겠으나 개심은 선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간증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의 증거로 인하여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과정이 그러한 과정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선교 과정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M]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월포드 우드럽



1840년 3월 1일은 내가 서른 셋이 되는 날이었다. 일요일이었던 지라 나는 낮에 헨리업의 공회당에 모인 회중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전도를 하였고 그 지역의 성도와 함께 성찬을 들었다.

저녁에도 성도와 구도자가 많이 모여 모임을 갖고 있었다. 첫번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아닌가? “이 모임은 그대같이 사람들과 갖게 되는 마지막 모임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으리라.”

나는 당시에 약속도 많았고 하여 이 말씀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차례가 되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모임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도 나만큼이나 놀랐다.

모임이 끝나자 네 사람이 자진하여 침례를 받겠다고 하여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밀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

그때 내가 얻은 답은 남쪽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많은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행하여야 할 막중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1840년 3월 3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차를 타고 26마일 떨어진 울버햄튼에 도착, 밤을 보냈다.

4일 아침 다시 마차를 타고 더들리스타우어브릿지, 스타우어포트, 워세스터까지 갔다. 여기서부터 수 마일을 걸어서 히어포드 샐리어의 존 벤바우씨 집에 당도하였다. 이곳은 말일성도의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지 않은 잉글랜드 남쪽에 위치한 농촌이었다.

나는 벤바우씨가 수백 에이커의 농토, 훌륭한 저택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 제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 주님의 명에 따라 구원의 사자로서 벤바우씨의 가정과 그 지역의 주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벤바우씨 부부는 기쁘고 고마

운 마음으로 나를 맞아 주었다. 하루 종일 마차를 타고 또 걸고 하여 48마일을 여행한 끝이었으나 저녁 대접을 받고는 밤두시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벤바우씨 부부는 하나님께서 말일에 택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입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영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무한히 기뻐하였다.

또한 나는 웨즐레이 교파의 감리교에서 이탈하여 모레이비아 목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6백명이나 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기뻐다.

그들 중 전도사는 45명이나 되었고 법으로 전도 활동이 허락된 예배당과 건물도 많았다.

이들은 빛과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한 채 주님께 부디 길을 열어 주셔서 구원의 참다운 길을 알려 줄 빛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

고 받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는 내가 헨 리움에 있을 때 힘들여 전도하고 있던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히어포드 샐리어에는 많은 성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추수지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깊은 잠을 잤다.

5일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들고는 벤바우씨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의 저택에는 전도 허가가 나 있는 큰 마루가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오늘 저녁에 미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실을 이웃에 전하였다.

시간이 가까와 오자 많은 사람이 모였다. 나는 그 집에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였다. 다음 날도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 때에 벤바우씨 부부와 감리교에서 이탈한 전도사 네 명이 침례를 받았다.

다음 날은 연못을 깨끗이 정리하여 침례를 준비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전부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8일 일요일, 아침에는 프롬스 힐에서, 오후에는 스탠리힐에서, 저녁에는 벤바우씨 백에서 전도를 하였다.

벤바우 형제집 근처에는 교구장이 감리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내 모임에는 약 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낮, 저녁 집회에 참석한 반면 겨우 15명이 참석하였다.

그날 저녁 벤바우 형제의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였다. 막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려 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는 경찰관으로 교구장의 신고로 체포 영장을 갖고 왔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죄로요?” “사람들에게 전도한 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의자에 앉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는 내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약 1시간 15분 동안 복음의 제1 원칙에 대하여 가르쳤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며 영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임이 끝나자 일곱 사람이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전도사 네 명과 경찰관도 그들 중에 끼어 있었다.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드럽씨, 저도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에게 침례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연못으로 가서 그 일곱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나는 열세 사람에게 확인 의식을 베풀고 성도와 함께 성찬을 들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을 금치 못했다.

경관은 교구장에게 가서 만일 우드럽씨가 복음을 가르치기 때

문에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영장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자기 평생에 참다운 복음에 관한 설교는 처음 들어 본다고 말했다.

교구장은 하는 수 없이 서기 두 사람을 정탐으로 모임에 참석시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알아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교구장은 놀랐으나 감히 다른 사람을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지역의 목사, 교구장은 회합을 갖고 캔터베리의 대주교에서 영국 땅에서의 물문의 전도를 금지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구장은 이 탄원서에서 물문 선교사 한 사람이 지난 7개월 동안에 영국 교회의 회원 수와 맞먹는 1,50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영국 법률이 모든 종교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대주교 평의회에서는 산토끼, 여우, 사냥개도 뛰노는 곳이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영혼의 가치를 인정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여도 많은 양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 왔다.

나는 전도를 계속하였고 매일 침례를 주었다. ☐

예언자의 생애 : 레온 알 하트슨(솔트레이크시 레저벳 출판사 1972) 20-24페이지

교회를 통해 본 위대한 선교사들

레오날드 제이 애링튼
교회 역사가

초기 교회 선교사는 신앙과 근면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오늘날의 선교사와 예비 선교사들에게도 여전히 모범이 되어 오고 있다.

브리감 영은 그의 설교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몬트로즈를 떠나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나의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강쪽으로 30미터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이스라엘 바로우는 나를 그의 말 등에 태우고 히버 씨 킴볼의 집으로 데려 갔으며 그곳에서 나는 18일까지 앓아 누워 있었읍니다. 나는 생후 열흘된 갓난 아기와 모든 병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병든 아내를 두고 떠났읍니다...”¹

조셉 에프 스미스는 전 대판장 조셉 필딩 스미스의 아버지이며 20세기 초반의 교회 대판장이었다. 조셉 에프의 아버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된 하이람 스미스였다. 다른 사람은 그가 집에 머물러 여동생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

1. “브리감 영의 역사” 밀레니얼스타XXV(1863년 10월 3일) 646

브리감 영



나 조셉 에프는 자진하여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지금의 하와이인 샌드위치 군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앞서 간 선교사들이 복음 가르치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울레족이나 백인, 원주민인 카나카족에게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그들의 어려운 언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그들 원주민에게서 훌륭한 교회 회원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조셉은 젊었으므로 원주민의 언어를 배웠으며 하와이인의 생소한 풍습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을 발견하였다. 그는 “나 혼자 이곳에 남아

언어를 익히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지라도 하겠다”²는 결의의 편지를 써 보냈다.

조셉은 언어를 배우고 하와이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가 하와이에 도착한 지 열달 후에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제가 봉사하고 있는 일이 실로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의 일임을 압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저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말씀

조셉 에프 스미스



드릴 수 있습니다.”³

그가 그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그

2. 조셉 필딩 스미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시 1938년) 170페이지
3. 같은 책

가 처하게 될 이상한 “환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그와 다른 선교사들이 옷을 두었던 창고에 불이 붙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조셉과 그의 동반자에게는 입을 만한 옷이 한 벌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 동안 그들은 한 사람만이 그 양복을 입고 모임에 나가고 다른 사람은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⁴

선교 사업을 한 대가로 애인과 머리카락을 잃었다는 유모러스한 농담을 한 주인공은 초기 교회의 또 하나의 위대하고 용감한 종허버 씨 킴블이다. 킴블 형제는 젊었을 때부터 대머리였다. 사람들이 그의 대머리를 놀려 주곤 하였는데 한 번은 그가 머리카락을 잃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가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젊었을 때 노바 스코티아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고향 뉴욕에서 1500마일이나 되는 곳을 배낭을 메고 걸어서 갔다.

“예전에도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긴 했으나, 막상 선

교 사업을 떠나 보니 그것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없었던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자 나의 머리는 팽창했고 털구멍이 열려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정신을 열었다면 아마 머리카락을 잃었을 겁니다.”⁵



허버 시 킴블

또 다른 홀름했던 선교사는 후에 사도가 된 팔리 피 프렛이다. 1830년 팔리는 23세로 오하이오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행하던 도중에 부당하게 구속되어 법정에 나오게 되었다. 파중한 벌금을 치루어야 했다. 그에겐 돈이 없었으므로 판사는 그

를 감옥에 구류하기로 판결을 내렸다. 이때는 밤이었고 수마일 떨어져 있는 감옥에 갈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팔리는 그날 밤을 호텔에서 경찰과 함께 지내야 했다. 그날 밤을 쉬고 다음 날 아침 식사 후에 그는 호위병 피바디씨에게 이끌려 감옥으로 가기 위하여 광장에 나왔다. 팔리는 이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피바디씨’당신 뭘 잘 뿔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오, 그러나 이 큰 불독은 잘 뛰죠. 벌써 여러 해 동안 나를 도와 주었지요. 내가 명령만 하면 누구나 잡아 오니까요.” “저, 피바디씨, 당신이 내게 1마일을 가자고 강요했는데 나는 벌써 당신과 2마일을 동행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설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게다가 잠도 재워 주고 아침까지 대접해 주었지요. 이제 나는 내 집을 가야겠습니다. 당신이 잘 뿔 수 있다면 나와 동행



팔리 피 프렛

4. 같은 책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5. 1856년 9월 28일 설교집 (26권 리버풀, 1854-1886), IV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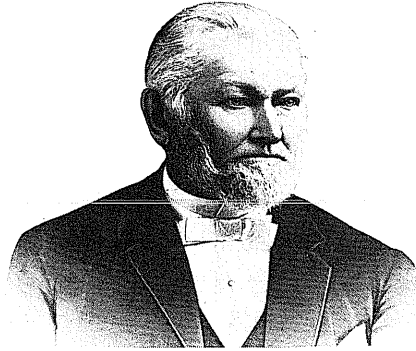
할 수도 있지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피마디씨는 너무도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팔리는 200야드나 뛰어가서 담을 뛰어 넘고 숲을 향해 벌판을 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개에게 잡아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그도 추격하였다. 개는 곧 팔리에게 가까이 왔고 거의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그때 팔리는 순간적인 영감으로 팔을 내밀어 숲쪽을 가리키며 순경이 개에게 명령하는 “스튜-보이”를 흉내내어 외쳤다.

“그 개는 전보다 두 배의 속력으로 내 앞을 지나 숲을 향하여 달려 갔습니다. 나와 그 순경도 같은 방향으로 뛰어 갔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곧 개와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⁶

아무도 팔리 프렛이 그러한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고는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환경에서 유모어를 잃지 않고 “해”를 오히려 “이”로 돌릴 수 있었다.

윌포드 우드럽 역시 그의 어려운 선교 사업에서 유모어를 찾았다. 그의 나이 27세였던 1830년 1월에 겪었던 경험을 말한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틀 동안 60마일을 걸었다. 첫날 그들은 꿈의 위협을 받았고,



윌포드 우드럽

길을 잃었으며, 여우의 추적을 당하다가, 마침내 밤 늦게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여 겨우 마루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나 음식은 얻어 먹지 못했다. 우드럽 장로는 “내 생애 최악의 날”이라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비 속을 12마일 걸다가 한 집을 발견하였는데 그 집 사람은 일년전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성도들을 내쫓은 폭도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집에 도착하니 식구들이 아침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다. 우드럽의 설명을 읽어 보자.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청하는 것이 미주리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물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물몬에 대하여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커다

란 베이콘 조각과 계란, 빵이 많이 있었으며 그의 욕설은 조금도 우리의 식욕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욕을 하면 우리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일어나서 모자를 집어 들고는 아침을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때까지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아침을 대접한 것으로 보상이었으리라 믿습니다.”⁷

신앙의 기반 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예를 매튜 카울리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말일성도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가 1학년일 때 수료했을 때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당시 17세였으나 부름을 받았고 곧 뉴질랜드로 선교 사업을 떠나 마우리인과 일을 하게 되었다.

카울리 장로의 일기에는 그의 가장 친한 동반자가 벼룩이었다고 써어있다. 왜냐하면 벼룩은 너무도 충실하게 그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일기 중 한 대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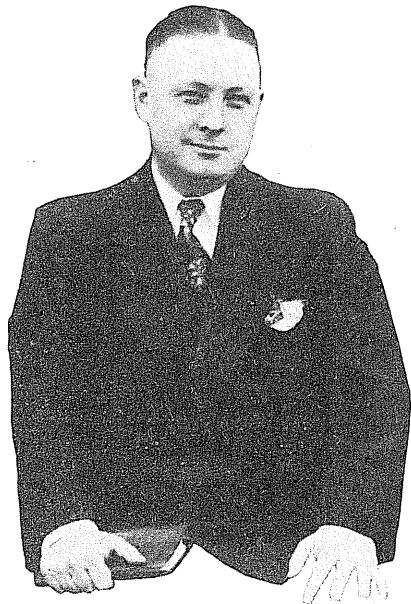
“저녁 기도를 끝낸 후 나는 내방으로 갔다. 침대에 눕기 전에 나는 내 몸을 벼룩으로부터 단단히 무장하였다. 몸 전체에 벼룩 약을

7. 매리아스 에프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 그의 생애와 노력(솔트레이크시 1909)50페이지 “윌포드 우드럽의 전기” 데저렛 뉴스, 1858년 7월7일 82페이지

6. 팔리 피 프렛, 팔리 파커 프렛 자서전(솔트레이크시 1966)50-51페이지

바르고 침대에는 판을 깔았다. 그렇게 하면 질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많은 벼룩의 시체가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것을 본 나의 감정은 승리를 거둔 나폴레옹의 감정이랄까.”⁸

카울리 장로는 새로 언어를 배워야 했으며 물론 처음 석달 동안은 동반자도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숲으로 가서 복음과 언어를 공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11시간 동안 있었다. 석달이 되었을 때 그는 원주민 앞에 서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때의 느낌을 그는 “내 생애에서 결코 느껴보지 못했고 또 느낄 수



매튜 카울리

없는 불길의 가슴에서 일어났다”고 표현하였다.

그들의 경험을 볼 때 이 선교사들은 경제학자들이 계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처럼 결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단가와 이윤을 저울질하는 가치 평가를 배운다. 대머리, 벼룩, 굶주림은 경제학자에게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완수한다는 결심은 팔리 피 프렛이 설명한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당한 단가-이윤의 원리가 된다.

앞서 소개한 경험이 일어나기 일년 전, 말일성도에 대하여 들어 보기도 전에 팔리는 잣 결혼했으며 50에이커의 농장과 안락한 집, 산출량이 많은 목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 결여된 듯한 느낌을 씻을 수가 없었다. 그는 좀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복음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었다. 이어 복음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그는 농장과 가정을 떠나 이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섰다. 그의 형 윌리엄이 충고를 하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와 가족을 부양할 만한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표는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자본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형은 보여달라고 했다. 팔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보물함을 열고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적힌 큰 수첩을 꺼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땅이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백배를 얻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⁹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통하리라’” 팔리는 형에게 이것이 참된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윌리엄은 “그래”라는 대답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30년 8월 팔리는 가산을 정리하여 주머니에 10달러를 갖고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러 나섰다.

그는 모든 선교사가 그렇듯이, 주님은 그의 수표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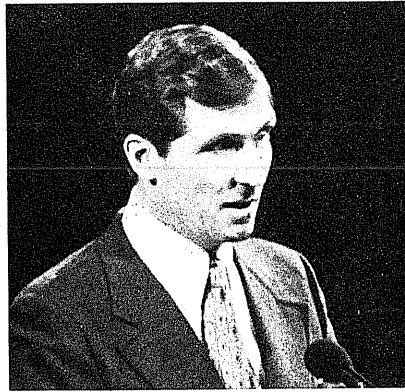
8. 헨리 에이 스미스, 매튜 카울리 : 신안인 (솔트레이크시, 1954) 48페이지

9. 자서전 50-51페이지

복음을 가르침 : 가장 중요한 임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함께 나눔

렉스 디 피니가



서 3장7-8, 11-12, 14-15절)

이와 같은 겸손한 감사의 느낌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과 선교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우리의 친지와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성스러운 책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교회 회원인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1832년 10월 23일, 십이사도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이 계시와 계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온 세계의 선교사들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힘을 입어 그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때때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면서 느꼈을지도 모르는 느낌에 한껏 젖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하므로.....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에베소

바로 이 순간부터 온 세상 사람에게 유효하며 복음은 아직 받아 들이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왕국을 받아 들인 자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너희로부터 저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4 : 75-76)

요셉 스미스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큰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에게도 마찬가지로의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입도록 하여 줍니다.

“이웃에게 경고하라”는 성스러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와 주는 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가족이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자기 안에 쌓아”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축복이 회원이 아닌 형제 자매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이 하나의 과업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주님의 크신 사업을 돕는 영광스런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 하도록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존스 형제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물몬경 한 권을 사서 표지 안면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간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를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가까운 친구인 브라운 가족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는 브라운씨 가족에게 존슨 형제 가족이 주는 선물인 물몬경을 전해 드렸습니다. 브라운씨 가족은 이 선물을 고맙게 여겨 이 기이한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존스 형제 가족도 친교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브라운씨 가족은 모두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느 작은 지부의 회원들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다섯 번의 모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상 밖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선교사들은 하루에 4번 내지 5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너무 많아지자 한 선교사는 주례 보고서 밑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선교부장님 : 죄송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에 너무 바빠서 땀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더 잘 할 것이니까요!”

이 선교사들은 회원이 소개해 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가르치는데 일 주일에 65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은 지부는 놀랄 만한 출석율과 가정 복음 성과를 보였습니다. 얼마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참여로 인하여 선교사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치과 의사는 의자에 앉은 “환자에게”, 주유소에서 그의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에게, 우체국에서, 심지어는 이웃 집에 가서 발을 가꾸는 법을 물으면서까지, 어느 곳에서나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레이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나갈 때 느꼈던 사랑과 평화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거듭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도 역시 마찬가지의 열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의 수고로 인하여 선교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중 4가족이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이 훌륭한 회원과 그의 가정 복음 동반자는 부지런히 다니며 선교사들과의 모임을 계획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지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쉽게 대해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한 이 회원 선교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와 수 마일 떨어져 있던 어느 회원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그의 친구에게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경험이 뒤따랐습니다. 어느날 두 선교사가 리치몬드에서 구도자를 찾기 위하여 길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동반자가 몸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한 선교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참기로 했습니다.

별로 좋아지지 않은 채 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고는 자기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문을 열어 준 여인은 “네 그러세요? 앤스미스가 보냈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 보고는 고개를 흔들며 그냥 이웃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보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게 하였는데 방 안에는 남편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약 한두 시간 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온 편지를 읽었어요. 일년 전에 제 친구는 남편과 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하였고 최근에 신전에서 결혼했지요. 사실 지난 번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교회와 그들 생활에 온 변화에 대하여 쓴 10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선교사에게 편지를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주일학교, 상향회등에 관하여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밑에는 “이 교회에 대하여 좀더 가르쳐 줄 선교사를 보내 줄게.”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

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회원과 선교사가 성실히 함께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삼아 그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시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앙이 깊은 회원과 두 선교사를 연합시켜 이 가정에 축량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 갈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전해 주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란의 시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못하고, 낙망하고 혼란되어 보다 좋은 무엇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보다 좋은 무엇”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물문경을 주시므로써, 신전과 전능과 함께 교회를 회복시킴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요 기쁨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영국 지역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뿐이니, 이는 곧 세상을 버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침례의 물을 통하여 그의 왕국에 들어가며, 성신의 은사를 받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종파나 단체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들도 계시로써 주어진 빛과 진리를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회복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큰 상속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이세상에 남아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요, 지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세상에 만연한 악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국 성도들에게,” 엔사인, 1971년 9월호 3-4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한 부”를 나누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전파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하나가 되어 아직 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나 동업자에게 물문경을 줄 수 있으며, 집에 초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 줄 수도 있고, 또한 편지로서 회복된 진리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각 처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사도 바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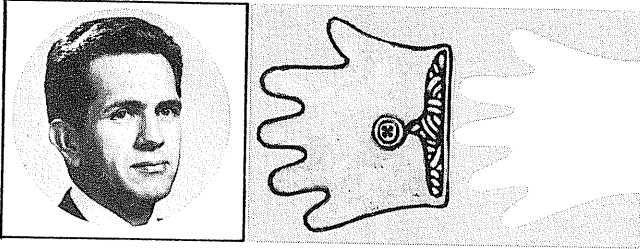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에베소서 3:16-21)

여러분께 엄숙하게 나의 간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오늘날에 성임된 예언자요 선전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사도가 어린이에게 주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여러 어린이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하고 싶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었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제 손이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지요.

장갑은 여러분의 육체와 같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도 있고 살아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사는 인간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졌읍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작용하고 행동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지상에 살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거나, 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사람이 죽었다고 보통 말하지요.

죽음이란 분리,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같은 장갑이 영혼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죽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통하여 본 것들은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미소짓게 하며, 행동하고,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잊어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분을 보내셔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동시에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다른 종류의 분리 즉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영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면 영적으로 깨끗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잘못을 범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낙담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슬플 때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읍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받고, 시험을 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다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하신 구속주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



일어나 걸으시오

사 람들은 날 때부터 앓은뱅이였던 이 사람을 매일 같이 성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혀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날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할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갔습니다. 앓은뱅이가 그들을 보더니 소리쳐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돌아다 보고 그가 앓은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좀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전 한 닢이라도 주려나 보다 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전 대신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몸을 굽혀 그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온 사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걸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 저리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앓은뱅이가 걷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 요한과 이 앓은뱅이 주위에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기이하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뚫어지게 보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모였던 오천여 명 중 대부분은 베드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치료받은 남자는 예수를 심판한 제사장 및 통치자 앞에 끌려 왔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앓은뱅이를 고쳤는가를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하게 섰습니다.”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의논한 결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사도들에게 다시 경고를 하고는 그들을 가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한데 모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인 장소가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믿는 자 대부분은 한 마음 한 정신으로 앓은뱅이를 걷게 한 기적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4장) **☞**

해마

해마는 코끝에서 꼬리끝까지 2인치부터 10 인치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각기 다르나 대부분은 3내지 4인치 정도이다.

해마의 꼬리는 보통 다른 물체를 휘어잡는데 쓴다. 이것으로 해마는 서로 달라붙거나, 산호, 뿌리있는 생장물, 조개 등에 달라붙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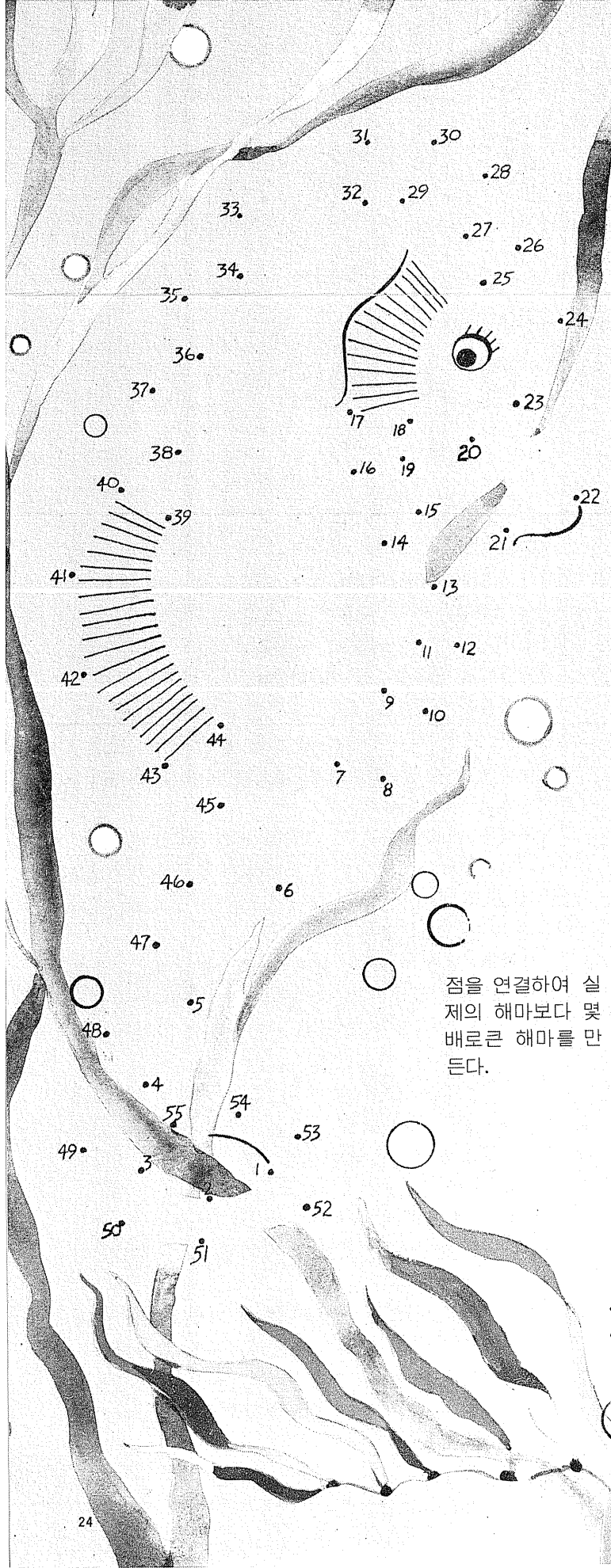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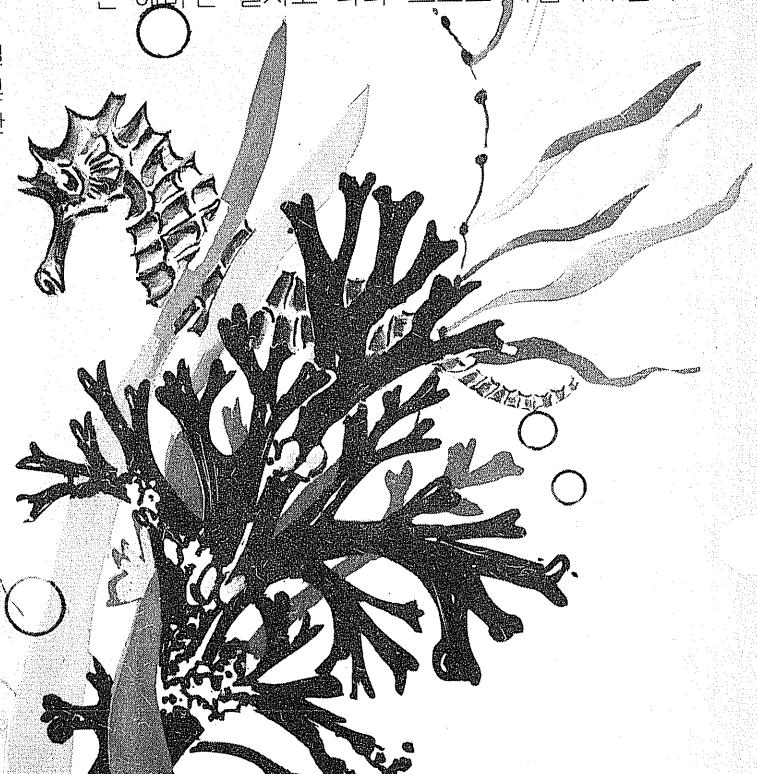
해마는 이가 없다. 길다란 코끝에 자그마한 조직판이 달려서 그것을 열고 다른 작은 해충이나 식물을 넣은 다음 닫는다.

해마의 색은 온도와 환경에 따라 갈색에서 검은 색, 혹은 연한 색으로 다양하게 변하며 해초와 섞여서 구별하기 어렵다.

해마는 독특한 눈을 갖고 있다. 눈꺼풀이 없다. 눈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전방에 음식물이 있다는 걸 알고 뒤에 또한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무얼 먹을 것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외에 해마의 생애에서 이상한 점은 암퇘지가 봄이나 여름의 배란기에 약 2백개의 알을 낳는 점이다. 그러면 숫놈은 이 알을 약 45일 동안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 알에서 나온 작은 해마는 밀치고 나와 스스로 헤엄치게 된다.

점을 연결하여 실제의 해마보다 몇 배로 큰 해마를 만든다.



화성 여행

보브 리더만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하는 데에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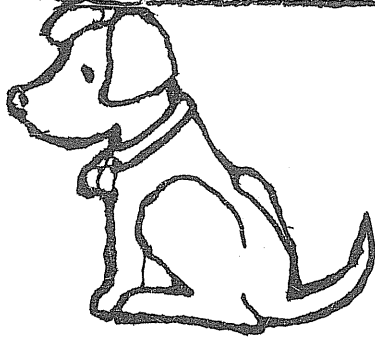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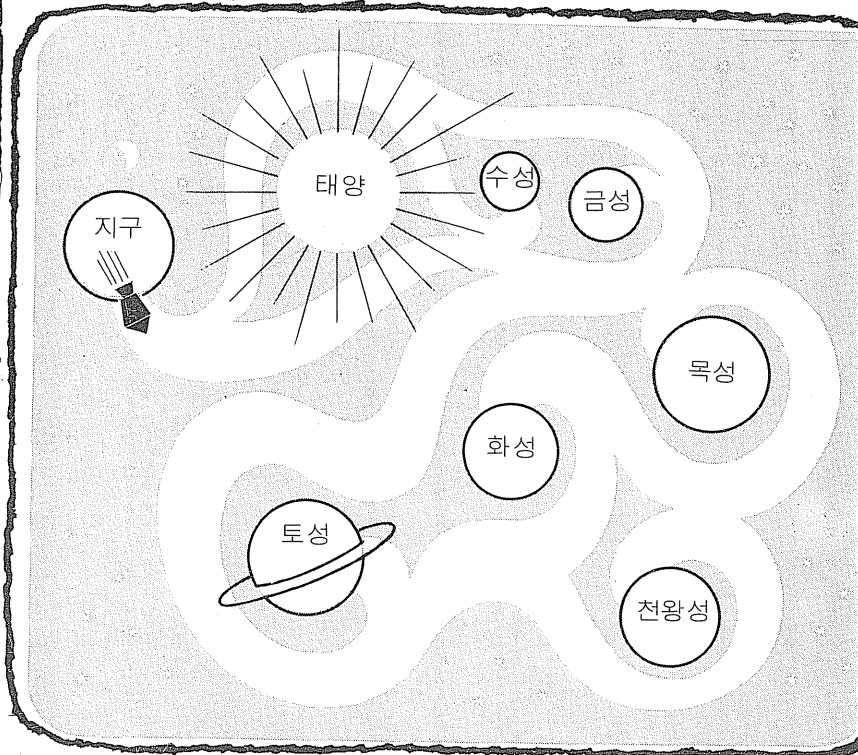


그림 짜맞추기

캐롤 코너 작

점이 있는 칸을 메우면 재미있는 파충류의 동물이 됩니다.



마닐라의 꽃장수

아그네스 엠 파로 / 웨리 틴슨 그림

타 마요는 마닐라의 장날을 좋아하였다. 그는 장터의 들뜬 소음과 독특한 냄새를 좋아했다. 또한 꽃바구니, 조개 껍질로 만든 보석류, 푸른 대양의 해안선 위로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모습을 즐겨 보았다. 그러나 오늘은 즐겁지가 않았다.

“올리드 아주머니가 편찮으셔서 내가 좀 돌봐드려야겠구나”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음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꽃을 팔아야만 하겠구나. 그런데 타마요야, 꽃을 시장에 내갈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꽃파는 사람은 전부 여자인데,” 타마요는 걸어가면서 혼자 투덜댔다. “호세가 제발 내꼴을 보지 말았으면!” 타마요는 일찍 서둘렀다. 아직 해가 동산에 얼굴을 내밀기 전이었다. 그는 나무가 무성한 사이로 반쯤 가려진 작은 호수를 지나, 마치 선반처럼 매달린 언덕 기슭 좁은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바다에 흰 고기잡이 배가 점처럼 떠 있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그가 마을로 통하는 지저분한 오솔길로 접어들자 머리에다 큰 꽃바구니를 인 여인네와 소녀들 무리가 보였다. 타마요는 그들이 자기에게 야릇한 시선을 보내면서 킁킁거리며 자기에 대해 지껄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되었다. 조금 후에 남자와 소녀들이 물소에다 코코넛과 바나나, 빨감 등을 싣고 오면 그때 더할 것이라는 사실을 타마요는 알고 있었다. 비웃을까? 특히 호세가!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타마요는

머리를 흔들면서 할머니가 늘 앉는, 안티노 아주머니의 옆 자리로 갔다.

안티노 아주머니는 이상한 듯이 그를 쳐다 보았다.

“오늘은 꽃을 네가 파니?”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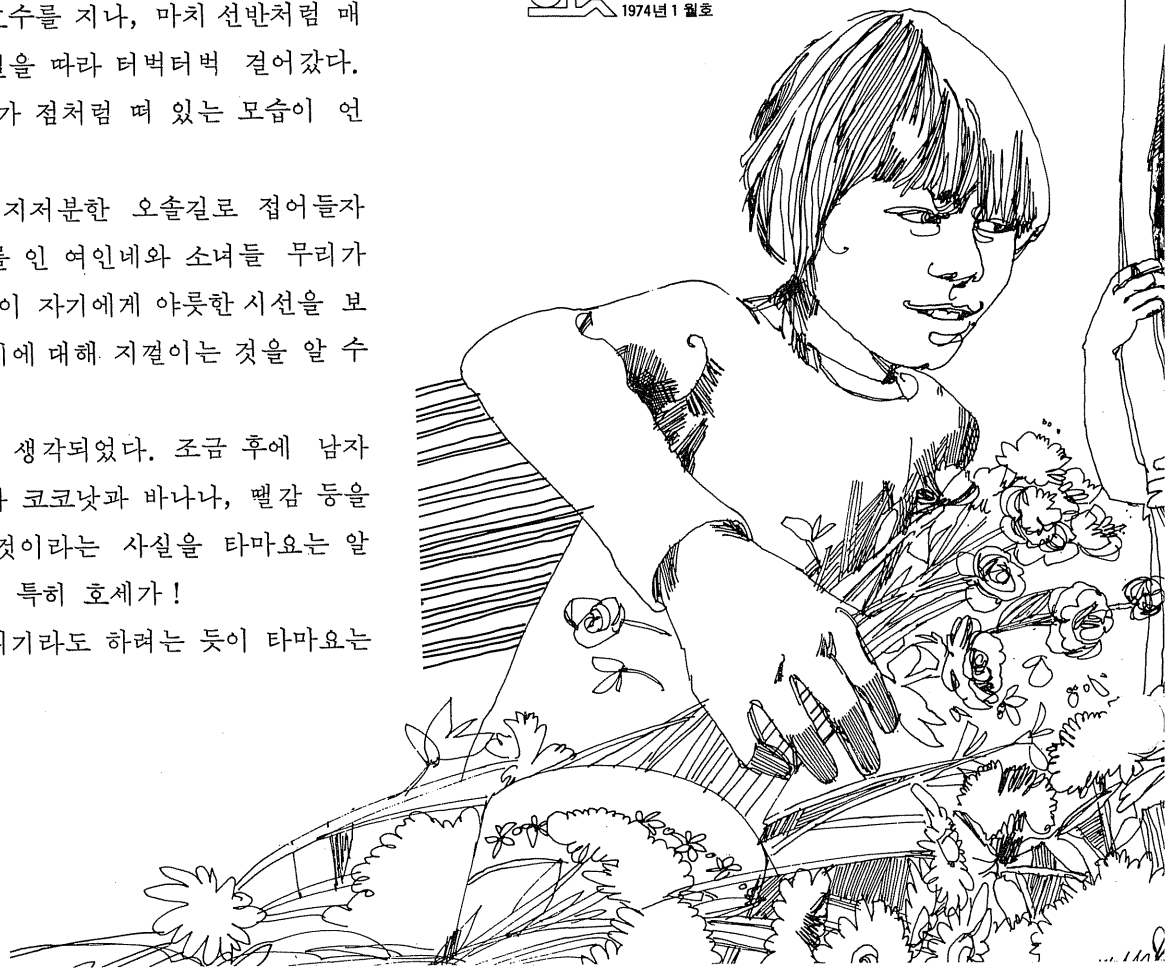
타마요는 “할머니가 오시지 못했어요.”라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동안 자기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꽃을 가지런히 잘 정돈해야 돼.” 하고 안티노 아주머니가 말해 주었다.

“할머니가 하시는 대로 말이지요.”하고 타마요도 대답했다. 그는 분홍, 노랑 테이지, 아름다운 빨강 장미, 희고 큰 백합을 구별하여 놓았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칭찬할 만한가 하고 살펴 보았다.

이웃

1974년 1월호



진열 상태는 기대한 것만큼 잘 되지는 않았으나 어떻게 해야 더 멋있게 될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안티노 아주머니가 손님 때문에 아직 바쁘지 않다면 좀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타마요는 단지 손님이 찾아와서 꽃을 사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야자나무 잎사귀로 된 지붕 사이로 태양빛이 비스듬히 비추기 시작했을 때 자갈위로 당나귀 말발굽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과 소년들이 오고 있었다. 타마요는 모퉁이로 물러서서는 꽃을 파는 일을 잊고 그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갑자기 안티노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저것 좀 봐, 호세가 광장에서 뿔내며 걸어오고 있잖아, 또 누구를 괴롭힐 모양이군.”

타마요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호세가 싱글거리는 것으로 보아 이미 평소와 다른 꽃장수의 모습을 보았음을 알았다. 타마요는 기어가듯이 발을 옮겼다. 빈 손으로 집에 가면 할머니가 실망하리라는 생각이 그를 달아나지 못하게 했다.

호세는 그의 앞에 멈추어 섰다.

“호!” 비웃으면서 테이지를 한 아름 잡아 쥐더니 조각조각 뜯어서 땅에 버렸다. “잡초파는 계집아이 타마요 좀 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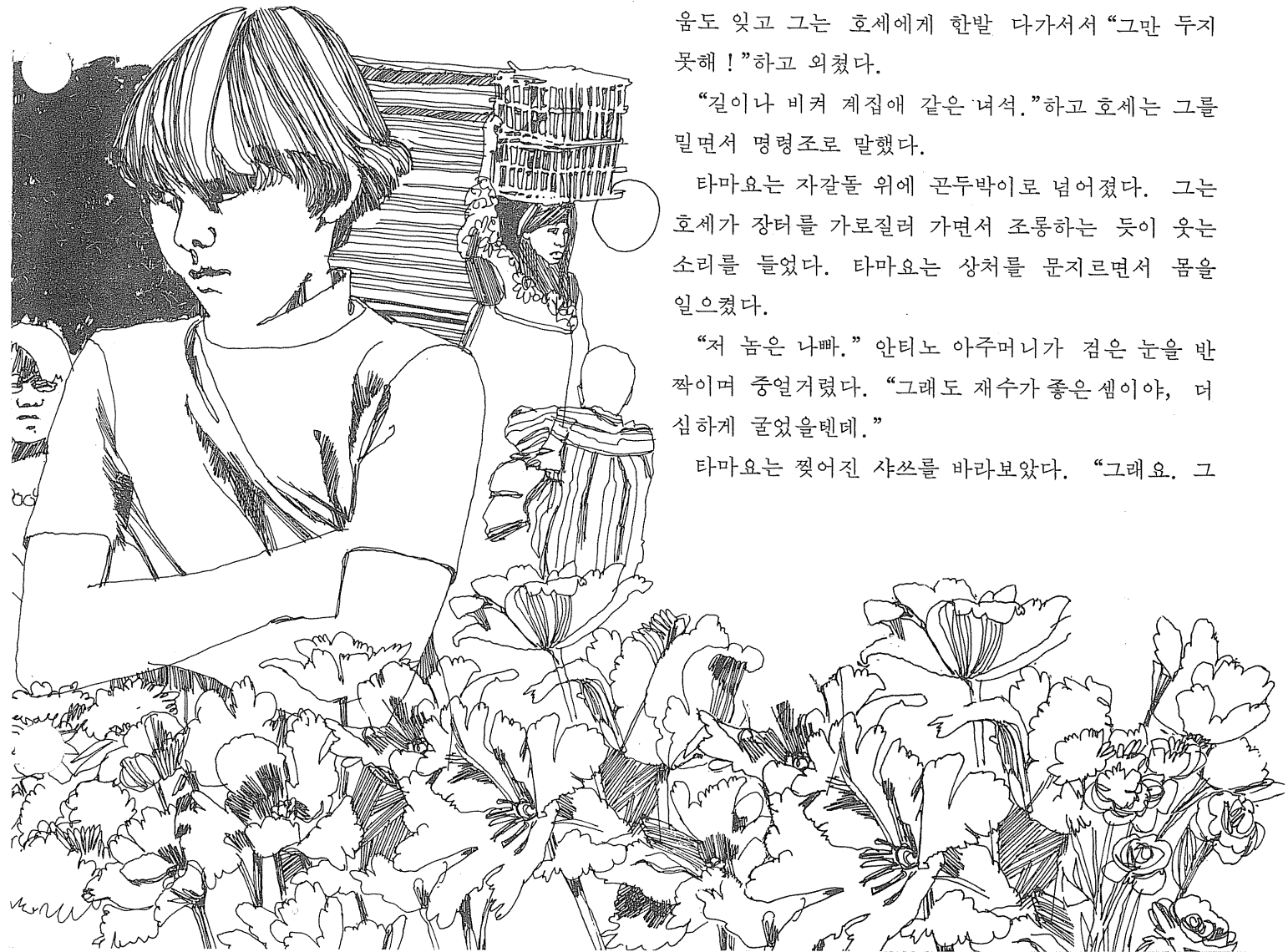
타마요는 할머니가 꽃을 아름답게 키우려고 고생하셨던 것이 생각나 속에서 화가 끓어 올랐다. 두려움도 잊고 그는 호세에게 한발 다가서서 “그만 두지 못해!”하고 외쳤다.

“길이나 비켜 계집애 같은 녀석.”하고 호세는 그를 밀면서 명령조로 말했다.

타마요는 자갈돌 위에 곤두박이로 넘어졌다. 그는 호세가 장터를 가로질러 가면서 조롱하는 듯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타마요는 상처를 문지르면서 몸을 일으켰다.

“저 놈은 나빠.” 안티노 아주머니가 검은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재수가 좋은 셈이야, 더 심하게 굴었을텐데.”

타마요는 찢어진 셔츠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



너석이 다신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낮이 지나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마침내 태양은 먼 수평선 아래로 빛을 내리웠다. 그는 꽃을 다 팔았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동전이 쟁그랑거렸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늦기 전에 어서 집으로 가야해. 갑자기 타마요는 몸서리쳤다. 호세가 길 도중에 잠복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타마요는 불안 속에서 온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낮의 더위가 지나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서 그는 선반같은 언덕 기슭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찢어진 옷 속으로 바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타마요는 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호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고함 소리가 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마 바람 소리였나봐.” 하고 생각했다. “늦게 우는 새소리 인지도 모르지.”

그때 또 다시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류”

한걸음에 타마요는 낮은 가지 사이로 달려가 바라보았다. 둑에서 몇 야드쯤 떨어져서 누군가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무를 꼭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호세다!” 타마요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호세가 무슨 짓을 했던 노력해서 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타마요는 옷 저고리와 바지를 벗으면서 “잠깐만 기다려, 갈테니까.”하고 외쳤다.

체구가 큰 소년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호세



는 힘이 쇠지만 지금은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다. 한번은 타마요를 물 속으로 밀어 넣을 뻔했다.

온 힘을 다해서 천천히 가까스로 타마요는 해안까지 올 수 있었다. 해안에 닿자 그와 호세는 기운이 쇠진하고 지쳐 와들와들 떨었다.

호세가 숨을 쯤 돌이키더니 “정말 고맙다 타마요야.”하고 중얼거렸다.

“웬일로 수영을 하고 있었니?” 하고 타마요가 물었다. “거의 다 어두워졌는데 말이야.”

호세는 젖은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어 빗었다.

“다리가 지쳐 있었어. 잠깐 강을 걸어서 건너려고 한 것 뿐인데 깊은 구멍으로 빠졌지 뭐야.” 그리고는 수줍은 듯이 덧붙여 말했다. “난 수영을 못해 네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

“내가 또 마침 그때 지나갔으니 다행이지.”하고 타마요도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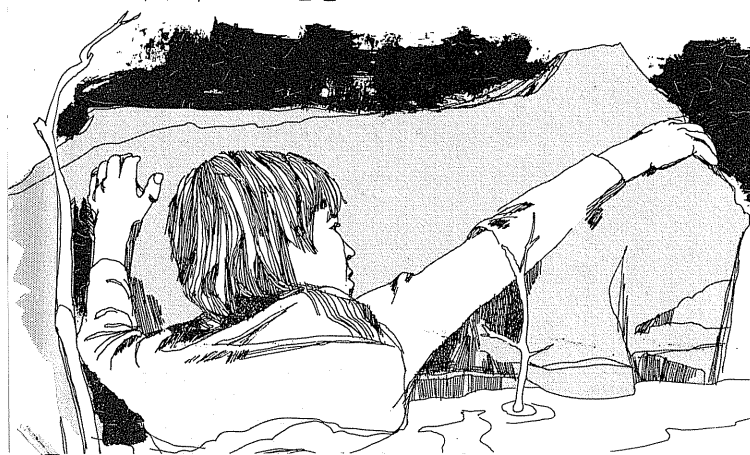
호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난 잘못된 일이 많아. 그래서 나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나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점이 많을거야.” 타마요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를 놀리고 쓰러뜨려서 미안하다.” 호세는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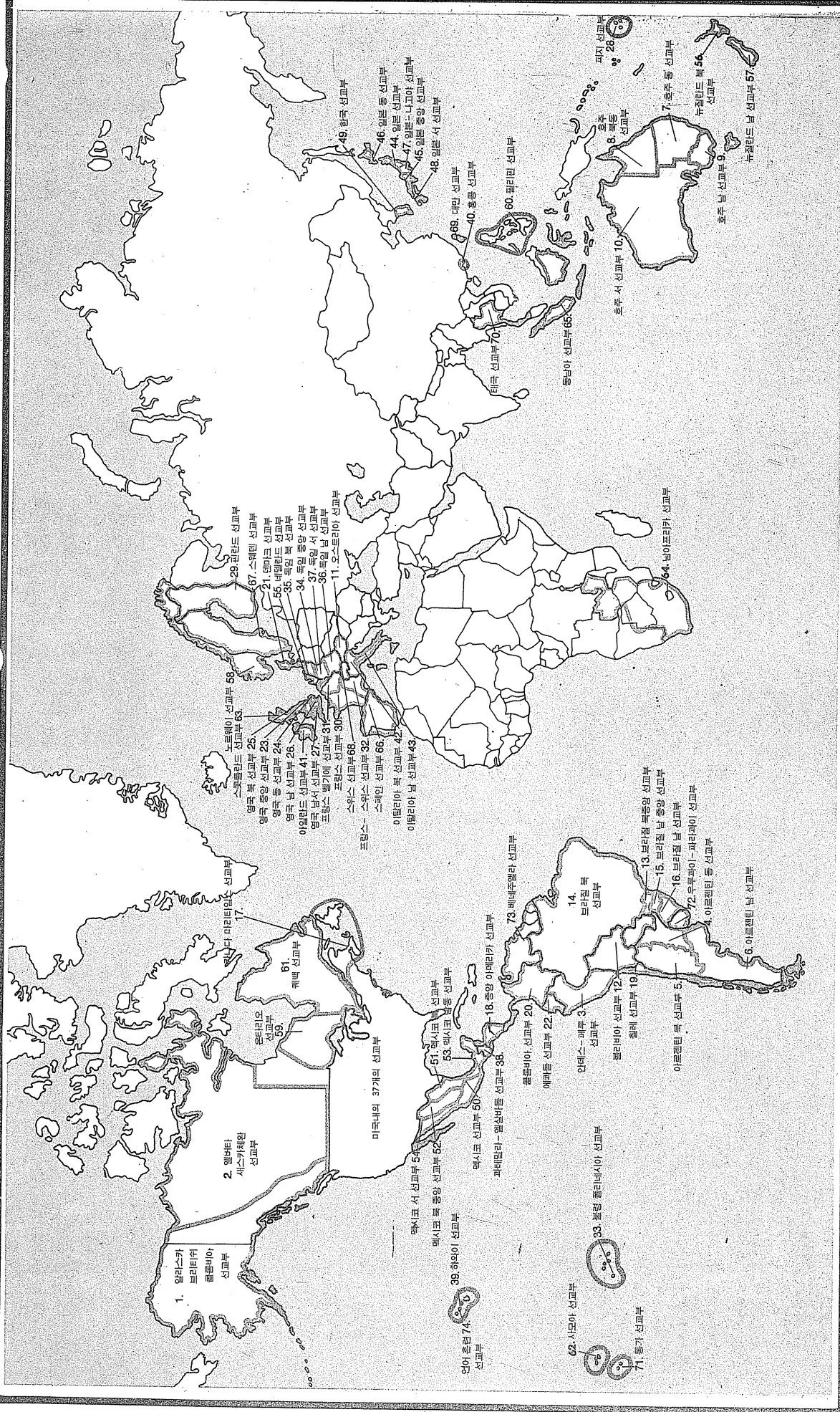
“너는 용감해. 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타마요는 싱긋 웃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가자”하고 타마요가 말했다.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걸어가지구나.”



세계 선교부

마이크로네시아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언자로 부터의 부름

글 : 린다 셀리

그림 : 필리스 루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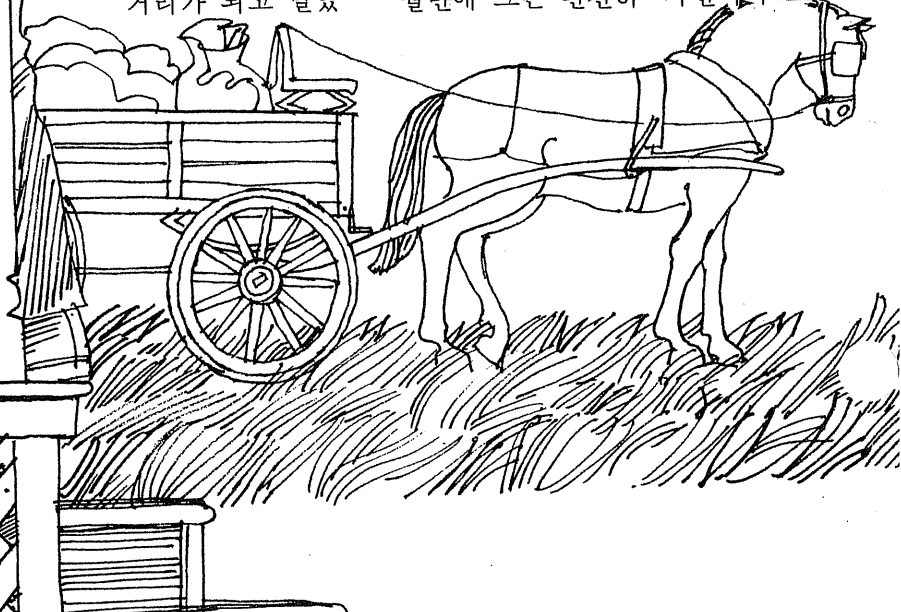
조지는 눈을 맞으며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몇 개 안 남은 녹슨 바늘에서부터 소다 비누, 밀, 개꽃 등 가정에서 소용되는 물건을 팔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가 그리도 동경했던 이름난 상인이 되었다. 이때 그에게 부름이 왔다.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예언자로부터의 부름이었다. 그가 부름을 받아 가게 된 곳은 많은 형제들이 봉사했던 스코틀랜드나 태평양의 섬이 아니요, 레이먼인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수많은 개종자가 나오는 캐나다도 아니었다. 조지의 부름은 녁마를 모으는 것이었다. 그는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

다. 거의 모든 사람은 그의 부름을 놀려댔으며 신앙이 강한 사람까지도 이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부름”이라고 말하였다. 조지 고다드는 이렇게 썼다.

“[이 사명]은 나의 자존심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지역에서 수년 동안 상인이요 경매인으로 이름이 났던 내가...한 손에는 바구니, 한 손에는 빈 자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녁마를 구걸해야 했다. 양상이 이렇게 변해질 수 있을까.... 영 대관장님이 이 부름을 주셨을 때 굴욕감으로 거의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이러한 치욕적인 부름도 역시 부름이었으며 그가 교회 대관장에게 보인 태도는 그의 자라온 환경과 개종의 동기를 잘 나타내어 주었다.

30년 전 조지는 한 때 영국 헤세스터에서 이름난 상인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입교한 조지와 아내 엘리자베스와 8자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조지가 지닌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성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장마당에서 다른 상인처럼 물건을 파는 대신 복음을 전파하였다. 차차로 그의 고객은 그를 떠났으며 입교한 지 8개월만에 그는 완전히 파산되어-그



의 가게는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 갔다.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졌을 때 “물몬 교리”를 가르치는 수치스러운 처사에 분개한 그의 형제중 한 사람이 “바보나 미신자들이 마음놓고 흥청거릴 수 있고 물몬이 토끼풀처럼 잘 번창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으로 조지와 가족을 보내 주어 곤경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851년 10월 조지와 아내와 8남매는 미국으로 가는데 섹스호에 올랐다. 그러나 시온으로 향하는 험한 여행에는 특히 어린 아이에게서 많은 죽음의 해가 따르게 마련이다. 조지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아이는 항해 도중에, 한 아이는 멤피스에서, 한 아이는 세인트 루이스의 추운 겨울에, 두 아이는 황야에서 콜레라로 죽었으며, 이 모든 일이 짧은 20개월간의 여행 중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시온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참된 복음은 얻었으나 때가 9월이었고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영국에서는 행상도 돈벌이가 되었으나 성도들에게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일을 찾아 보았다. 여기 저기 걸어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였으며 채석장에서 돌나르는 일까지도 얻으려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열심히 찾는 중에 그는 솔트레이크 가게에 바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가 영국에서 올 때 바늘을 주요 잡화물로 많이 가져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시장을 둘러본 후에 그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잡화물을 담아 놓고 팔았던 오래된 담배 상자를 꺼내어 다시 한 번 행상 길을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나섰다. 바늘이 다 떨어지자 조지는 성도들이 집에서 만든 잉크, 비누, 성냥 등의 가내 수공업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열심히 수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그는 점차로 그 지역에서 신임을 얻었으며 1861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솔트레이크 계곡의 5대 우수 상인의 한 사람으로 불렀다.

예언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녀마를 모으라는 부름을 받아 또 한번 유명해졌던 때가 바로 이 1861년이였다. 제일 처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굴욕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뿐이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조국인 영국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므로 나의 시간이나 수단은 모두 그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 고다드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업에 눈이 밝은 조지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을 계획하여 녀마를 모았다. 그는 마을의 맨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평균 5호당 하나씩 모았다. 3년 동안 그는 솔트레이크에 있는 가정을 3번씩 찾았으며 스프링빌, 프로보, 아메리칸 포크, 리하이, 윌로우 크릭, 빅 코튼우드, 옥든 시티, 케이스, 와드, 파밍톤, 센터빌, 세손스, 세틀먼트, 샌피티와 아이다호주에 있는 몇 개의 도시의 거의 모든 가정을 찾았다. 일단 그가 알려지자 녀마 수집가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점점 좋아졌다. 그는 감독들로부터 성도들에게 유타주의 종이 산업 문제로 인하여 녀마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소위 “녕마 설교”를 하게끔 부탁도 받았다. 조지는 녀마를 받는 대신 여인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까지 계획했다. 그의 사명이 끝날 즈음에는 교환 물품 목록이 매우 길어졌으며 마노 단추에서부터 복숭아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물품과 바뀌며 녀마를 모으는 가운데 여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핀잔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의 일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면을 발견하였다. 때때로 우는 아이를 야단치는 어머니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녀마 장수한테 보낸다”고 말하는 것들을 들을 때 그는 혼자 웃었다고 한다. 물론 그 말이 심한 욕같아 보였으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곧 3년간의 일이 끝났다. 그는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그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 조지는 녀마를 모으는 수치스러운 일이 그 지역에서 그의 위치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부름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물몬 지역의 사람들과 알게 되었으므로 그는 전보다도 더 존경받는 상인이며 지도자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조지 고다드가 예언자 학교의 서기였으며, 솔트레이크 주일학교 회장이었으며, 그 외에 그가 지녔던 중요한 처분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역사는 단순히 조지 고다드가 녀마를 수집하라는 부름을 예언자로부터 받았으며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의 개종

하트만 렉터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뒤리에있는 렉터가의 농장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다. 아버지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명예를 잃지 않는 분이 없었다. 단돈 백원의 빚을 갚기 위해 백리도 기꺼이 걸어 가시던 분이었고 나는 확신한다. 한 번 약속을 했으면 글로 적은 계약서 따위가 필요치 않는 분이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품위를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어린 나에게는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께서 신앙인이었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갈구했다면 왜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을까? 마치 아버지의 행동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 듯이 보였다. 예를 들면 언젠가 한 번 아버지께

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시고는 나에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리고도 아버님은 파이프를 무시고 담배를 피우셨던 것이다.

나는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되어서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예비 비행 훈련이 끝난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교회까지 열을 지어 가서 예배를 보았으며 그때 이후로 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에 관한 서적을 읽고 믿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린 시절 집에서 느꼈던 모순이 사라지지 않았다. 말과 실제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경전과 달랐으며 또 그 교회에서 말과 실제와의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았다.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답을 얻지 못하였다.

한 번은 어느 군복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신앙은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은 내게 옳은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 번은 내가 세인트 루이스(미주리주)역을 지나다가 군인 주보에서 한 목사를 만났는데 그는 나를 조그만 회의실로 안내했으며,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지 물었고 나는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좋지 않은 동료와도 함께 있게 될 것이며 나와 나쁜 관계를 갖고자 하는 여인들과도 접하게 될 것이며 또 그런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바보라고 나를 꼬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깨끗하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현명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약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해의 그녀의 모습



바로 그해의 나의 모습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들의 생각처럼 나약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청결한 생활에는 큰 보상이 따르며 또 내가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겠지만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바라는 것처럼 자신도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며, 순결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했으며 그 예로 군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에 더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내가 아직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문제에 관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우연히 만나 듣게 된 이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나

DOCTRINE AND COVENANTS

PEARL OF GREAT PRICE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날 수가 있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 다니는 동안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질 못했다.

1947년에 나는 해군에서 예편되어 미주리에 있는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나는 4년 동안



공군에 있을때



나에게 침례를 준 물몬들



하트만에게서 온 편지



VIA AIR MAIL

THE RECTOR
19TH STREET.
SAN DIEGO, CALIF.



1974년 1월호



결혼 후

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의 충고에 따르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것을 그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 그 후 도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일이 많았으나 마치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랑하여 오던 키가 작은 흑발을 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내 나이는 18세였고 그녀의 나이는 14세였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바로 내가

그리던 소녀라는 것을 알았다. 그 날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으며 우리는 곧 사귀게 되었다. 나는 얼마 후에 곧 해군에 입대하게 되며 4년 후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4년 후에 나는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5개월 후에는 그녀와 결혼을 하였다. 신혼 때에도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의견을 나누었다. 두 아이를 가지게 된 후에 나는 다른 해군 항공 조종사들과 함께 소집되어 한국 동란에 참전하게 되었다. 처음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비행대에 배속을 받았다가 13주의 특수 훈련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가게 되었다. 나는 샌디에고에 가족을 남겨 두고 떠났다.

내가 하와이로 출발하고 아내가 우리의 집과 가구를 전세 집에다 옮긴 지 얼마 안되어 물몬선 교사들이 아내가 있는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소책자를 전달했으며, 아내와 함께 그들이 토론한 많은 문제들은 우리 부부가 함께 깊이 생각해 오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내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내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 선교사가 그를 찾아와 신앙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그들은 그 문제의 답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편지를 받고 나는 매우 화가났다. 내가 없는 동안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빙자하여 아내를 찾아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우기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 오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한다는 것이 더욱 싫었다.

내가 하와이에서 돌아 온 첫날 저녁에 나의 아내 코니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 주었다. 시현과 계시의 이야기가 우

습게만 들려 나는 그녀 앞에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나의 행동으로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그 이야기가 그녀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당신이 공부하라고 남겨 둔 책을 나도 읽어 보아야 하겠오.”

나는 물몬경을 읽자마자 내가 그토록 찾았던 것을 이제야 찾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니파이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 책이 참된 것이기를 빕니다. 제발 이 책이 진리의 책이기를 빕니다. 이 책은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혼자 중얼거린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니파이일서를 다 읽기도 전에 나는 물몬경이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제게 진리를 알게 하여 줍소서. 저를 진리로 인도하여 줍소서”란 단순한 기도를 얼마나 해 왔던가. 나는 여러 곳에서 진리를 찾아도 보았다. 이제 이곳에서 두 젊은이가 바로 그리던 그 진리를 나에게 전해 주었다. 비록 그들이 젊기는 하나 그들에게는 큰 능력인 진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제의를 논박할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일요일 예배에 몇 번 참석하기도 못해서 한국으로 떠나라는 명을 받았다. 1951년의 마지막 날 나는 한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다. 그때 나는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한 권으로 합본된 책과 제임스 이 탈매지가 쓴 신앙 개조를 가지고 있었다. 배에서의 첫 일개월 동안에 나는

“신앙 개조”를 모두 읽었다. 2월의 어느 날 저녁에 말일성도 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선원 도서실에서 열린다는 광고를 들었다. 그 시간에 도서실로 가보니 샌디에고의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그 젊은이들과 매우 밝은 네 명의 청년이 있었다. 나는 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교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기쁘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1952년 2월 하순 경에 우리는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배에 함께 탔던 그 성도들은 내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나를 일본 선교부에게 데려 갔으며 그곳에서 접견을 마치고 침례 추천을 받았다. 1952년 2월 25일 나는 미주리주의 나의 집에서 7000마일 떨어져 있는 일본 선교본부의 후원에서 화씨 30도(영하 1도 정도)의 기온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안수를 받았다. 나의 아내는 이보다 나흘 후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갈구하던 진리를 찾아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생각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㉔

이웃에 간증을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

유대의 넓은 들에

십이사도 정원회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벧전 4:11)라 하였는데 이는 성신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니,

무엇보다도 성신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할 것인가를 주님과 의논하였으며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제 나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교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유대의 넓은 들에 서서
해의 영광의 노래를 들었네

티끌 한 점 없는 음성을 들었네
나유훈의 자손이 태어났다네.

목자가 밤에 양지킬 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네.
하늘 저 위에서 성스러운 합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흠뻑로 집을 짓네

달콤한 노래가 이어 퍼지네
“주께 영광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

이는 예수께서 나신 날이라”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증인이 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고 깨끗한 분이요.

죄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하러 왔노라”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사망에서 인간을 구속하려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침수로써의 침례로 계명을 지킬 것과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약으로 맺으며 그런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고 함께 할 것을 약속받으며, 이후로 의와 헌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생에서 평화를 얻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확신과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행하며 대표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다시 왔으며 열쇠와 권세, 권능과 신권이 다시 인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율법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인간을 구원하여 승영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국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 즉 온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옛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신 것과 똑같은 책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받은 우리는 것처럼 중요한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진리를 외칠 것이며 회복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옛날의 모든 예언자와 의로운 사람이 행한 일과 그 원리가 같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간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장로와 교사와 제자들은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42:12)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나가 “...백성들에게 증거하

며 경고하게 하노니...”(교성 88 : 81)
라 하셨습니다.

이 두 사명 즉 한편으로 복음의 교
리를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우리의 왕국인 이 교회에는 하
나님의 왕국의 열쇠즉 온 세상
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열쇠
가 주어졌습니다.

가 외치는 사실들이 진리임을 안다는
간증을 전하는 사명은 모사이야의 여
러 아들의 행적에서도 완전하게 설명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
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
음을 연구한 사람들이며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
느니라.”(앨 17 : 2-3)

이제 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
회의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
고 가능한 한 지혜를 다하여 변론해야
하며 우리가 부여받은 온갖 능력과
힘을 기울여 구원의 소식을 외치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
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에
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
이나 우리와 친밀한 교회의 회원들에
게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성령의 계
시에 의해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알리며, 하나님 사업이 참되고 성스
러운 것임을 안다는 간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
떻게 행해졌는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지들은 오늘날 우리
에게 주어진 것처럼 구원의 소식을
세상의 끝까지 전할 사명을 갖고 있
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와 다른 예
언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
해 받은 계시를 읽고 가르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 :
18)고 하신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인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사 41 : 21)라는 말씀에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경전의 그 말씀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교리를 가르치고 변론을 한 후에 그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들은 진리이며 성스러운 사실이요 또한 주님은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 그의 위에 임하게 하셔서 그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른 몇몇 사도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자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 : 38-39)라 이르니 그제서야 그들은 손을 뻗쳐 주의 몸이 난 상처를 만져 보았으며 또 예수께서는 고기를 청하사 그것을 잡수셨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니 8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 나타나사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니 이다”라고 했습니다. (요 20 : 24-28 참조)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터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오셨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자들이 외치던 구원의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하고 계시로부터 얻은 것으로 변론도 하였을 것이며 그들 스스로의 간증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 중 베드로가 이방인 무리 앞에서 한 간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

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사도행전 10 : 36-42)

다음에 이같은 포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 : 43)

베드로의 또 다른 간증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벧후 1 : 16-18)

저는 우리가 온 힘과 능력을 다하여 복음을 연구하고 계시를 연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 분석하여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 하는 등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조금도 깎아 내지 아니합니다. 그저 수수방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현대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사 43 : 12)라는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실함을 확

신해야 하며 성신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지식과 간증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길게 변론한 후에 사람들은 그에게 논박하기를 “당신은 성경을 모르고 있으. 당신의 말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임한 성령의 계시로 이 사업과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실되며 성스러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변론을 한 후에 평상시와 다름 없이 “나는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나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함께 모시고 3년 반 동안 고락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가버나움에 사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 보았으며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도 잡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드시고 물을 마실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성령이 나의 영혼에 임하여 이 사실을 증거케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논박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 꼬집어 헐뜯겠습니까? 누구나 베드로가 바울에게 말했듯이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행 26 : 24)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간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귀

착하게 됩니다. 그 간증은 진실이거나 아니면 거짓일 것입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우리 시대에 천사가 방문했고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시의 내용을 잘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한 뒤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는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사이야의 여러 아들이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권능을 지니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으며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말을 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말일의 수많은 이스라엘인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거룩한 사업이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넓은 들”에서 말씀을 시작하

였으니 “다락방”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식탁에 앉았으나 마음은 고뇌뿐 이는 사악한 무리가 주를 죽였음이라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았네
육신은 요셉의 무덤에 고이 누워있었네

주가 우리 곁에 다시 섰네
그는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시니
경외로움으로 우리는 그의 발 아래 꿇었네 도마에게 던지는 조용한 말씀
“내 손을 잡아 보라 전과 다름이 없느니라.
내가 나무에 매달려 나와 너를 위한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바로 그 손이라.”

주는 경건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네
“내 몸 살과 뼈를 잡아 보라”
내 영혼은 소리쳐 “당신 앞에 머리 숙입니다
구세주 주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모든 말씀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모든 지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㉞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우리의 목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십이사도 보조

오 늘 저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과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님께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성약한 사람들에 대해 간증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대륙의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삼 27 : 27)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경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침과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기가 수행할 사명과 스스로 바쳐야 할 희생을 알고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멍에서 피가 솟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는 피로써 우리를 샀고 불사 불멸의 은사를 가져다 주셨으며 현세와 영원을 두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인자하신 분이요 소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살



아 계신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시었으며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이 나중에 그를 배신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이룩할 속죄의 사명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회개를 외치셨고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으셨으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을 가르치셨고 충실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신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몸소 나사렛 회당에서 확인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눅 4 : 18)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잃어 버린 양, 잃어 버린 동전, 탕자 등의 비유를 가르치셨으며

비난받는 삭개오와 음식을 같이 드셨으며, 사람들에게 훈계하여 이르시기를 긍휼을 보내준 비천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으라 하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반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눅 18 : 13)라고 말하는 겸손한 세리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회개한 여인을 힐책하는 자들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는 감명깊은 비유로서 자기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떡을 주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떡을 주는 것이며 친절 곧 자비와 봉사의 행동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치실 만큼 이웃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과 같은 그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약속과 평안을 안겨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6 : 22)

또한 그는 의로운 자와 소망이 없

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

그리스도께서는 이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법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7-18)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그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불러 모으시고 축복하시고는 우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은 그가 어떠한 분이시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구속주요 온 인류의 구속주요 영으로는 장차요 육신은 입은 자로서는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셨으며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고……또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교성 76:41-42)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그가 행하여 주신 것과 똑같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에서 보여 주신 그의 모범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와 같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을 들어 올려 주고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안내하는 별이요 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의 거룩한 신권을 위임받으며 그의 일을 행하는 대리자가 될 때 그를 대표하여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행할 것을 성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애완 동물을 잃어 버린 작은 소년이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글썽거리며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녀의 온 힘을 다해 찾아 보았으나 애완 동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그 어머니는 물어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울 수 있잖아요.”라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최근 저는 문제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일을 맡고 있는 다정한 친구로부터 열 일곱 양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9세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와 함께 울고 웃어 주며 그녀를 가르치고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은 사반세기 이상이나 휠체어에 의지하며 무엇인가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온 친한 친구인 루이스 레이크 자매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열 두 살먹은 아들도 따라 갔기 때문에 레이크 자매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뉴욕에 있는 재건 센터에서 일할 때 알게 된 12세 소년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눈먼 소년으로 거의 12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비관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후 그는 주님께 감사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고 훌륭한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기가 캠퍼씨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은 눈이 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씨로 말하자면 선수 생활이 한창일 때 교통 사고로 인해 불구자가 된 유명한 운동가인 로이 캠퍼벨라였습니다. 눈먼 소년은 캠퍼씨를 만나고 나서 그의 상태가 볼 수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있어요.”라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내려 가며 사람들이 자기 옆을 스쳐 갈 때 내는 발소리를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눈멀게 된다는지 병신이 된다는지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라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우정을 받아들일 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1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있다면 병든 딸이거나 집을 떠나 있는 아들일 거예요.”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다.

월남의 다낭시에서 말일성도 군인들과 가진 모임을 마친 뒤 우리는 바로 그날 거의 임종할 단계에 이르러 계속 몸을 떨고 있는 한 선임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요하지는 않고 매우 미안해 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행스 형제님, 귀국하시게 되면 단 1분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열 두 살 먹은 제 아들에게 전화나 짤막한 편지를 적어 아빠는 무사하며 항상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애가 아빠도 참석하지 않은 채 지난 주일 집사 신권에 성임되었답니다. 그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나를 알려 주고 싶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역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인정하는 대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비통해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대나 현대 예언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전한 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이토록 많은 것을 알려 주셨으며, 이제 주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 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니 낙심하여 고개를 떨어뜨리지 말자...

성도의 벗 1974년 1월호

...”(나이 10 : 20)

위대한 예언자 몰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에 보면 백성들의 사악함에 대해 느낀 예언자의 비통함이 기록되어 있으며, “원리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느낌”이 될 기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한 몰몬의 최후의 간증에는 그리스도의 은사가 우리 생애의 전반에 끼쳐야 하는 영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훈계와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과 부활], 자비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모로 9 : 25)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탄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끌어내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를 통해 그의 은사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높이 들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축복을 마음 속에 간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쉽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 (Ⅱ 5 : 13)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와 같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애통하는 회개한 사람을 들어 올려 주고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모든 선량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자기의 부적당함과 무지와 자만에 직면하여 괴로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선량하고 착한 사람인 욥도 그의 시

련이 끝날 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 : 2, 5-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바치며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영혼의 가치를 믿으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열의를 증거하고, 또한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고 우는 자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며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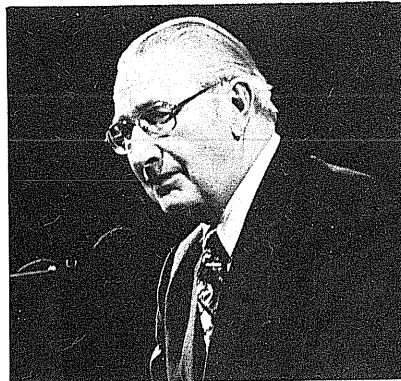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까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랴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나타나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 (엘 34 : 27-28)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를 바라 보고 주위도 살펴 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합당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경전을 통해 나타내진 복음은 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되어야 함

인간의 자유의지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십이사도 보조



어느 추운 겨울 일요일 아침 북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고 보도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으며 도로는 퇴설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라고는 목사와 89세 난 노파 한 분 밖에 없었는데 노파는 집에서부터 열 구역이나 되는 먼 거리를 절름거리며 걸어 왔습니다.

목사는 노파를 보자 깜짝 놀라며 노파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날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이곳에 왔어요. 그 다음 나머지 일은 쉬운 일이었지요.”(인용문, 1973년 1월 26일, 5페이지)

이 단순한 일화는 모든 인간이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떠한 선택이든 그것이 마음의 설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설득은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개의 상반되는 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힘인데 이러한 힘을 다스리는 주인을 하나님과 부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성은 이와 같은 두 개의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제동기입니다. 인간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 선택의 성격과 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여 소위 말하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같은 선택의 특권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선거일을 맞이한다. 이는 우리가 매시간마다 자기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나 투표를 하기 위해 지역 선거나 전국 선거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인간의 선택은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거나 반대되는 결정적인 투표를 좌우할 수 있다…… 여러분은 자기의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선택하거나 안하기도 하고 정직한 것을 선택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며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저축할 것을 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여러분은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된다.”(짐 러브, 알 앤드 알 매거진, 미국의 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10권 64페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이와 같은 자유의지의 실제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상세히 설명된 다음 성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 지라……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 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아브라함서 3:22-27)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2) 하는지라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브라함서 3:27)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아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 하였더라.”(모세서 4:1)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니……”(아브라함서 3:27-28)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4)

사탄이 하나님을 모반하여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모세서 4:3)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특성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의 벗 1974년 1월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추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말에 표현된 사실과 똑같은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이란 인간이지만 존엄성의 한 요소입니다.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 이하의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는 바로 선택인 것입니다.”(조오지 이 파아링, “젊은이가 할 수 없으나 꼭 해야 할 일.” 감리교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선택을 도와 주는 최고로 훌륭한 매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매체란 경전에 기록된 바 그의 예언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줌으로써 안식일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고 책잡아 고소하는 그 당시의 비굴한 유대인에게 대답하시면서 이를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5:37-40)

그들의 문제에 대한 지침은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생의 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 지침은 경전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이성 작용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지식이 담겨있습니다. 디모테에게 전한 바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테후서 3:15-17)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대업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들에게는 경전이 신앙과 우리, 결심과 지도력의 근원이요, 우리의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잘 알려진 본보기 몇 개를 설명하기 위해 경전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많이 가졌고 훌륭한 가족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부자인 욥의 신앙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 버리는 고통을 받고 신앙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계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욥 1:20-21)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건강이 허약하게 되자 그의 아내는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도자 여호수
아가 역시 자기
의 선택의 모범
을 통해 호전적
인 백성들의 마
음을 돌이키게
하였을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이에 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욱 2: 9-10)

그후 욱은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같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
에 그가 땅위에서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욱
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굳은 결의에 관하여 생각해볼 때 남
편이 죽은 루에게 그녀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을 때 루이 시
어머니에게 보여 준 헌신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본보기가 있겠습니까?
그때 루은 시어머니를 붙들며 이러
게 말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
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
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
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은 우리가 그의 복음
에 친밀하게 되고 복음을
시험하고 증거하며 또한 복
음 가운데서 생활하고 참여
하며 복음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원하고 계
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
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

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16-17)

왕후 에스더도 자기의 동족을 멸망에서 구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도와 주심을 간구하며 모르드개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 4:16)

지도자 여호수아가 역시 자기의 선택의 모범을 통해 호전적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수 24:14-16, 24)

이와 같은 본보기는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본보기 중의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훌륭한 성품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만 보아서도 우리의 영은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그들이 지녔던 힘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을 잘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 1:18) 그는 우리가 그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전에 보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신 완전한 주의 복음과 영원한 서약을 보내셨나니, (교성 133:57)

그는 우리가 그의 복음에 친밀하게 되고, 복음을 시험하고 증거하며 또한 복음 가운데서 생활하고 참여하며 복음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의 선택의 진리에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이 진리와 부합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을 설정해 주는 확고한 논리가 서게 됩니다.

이성은 진리하고만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악과 오류를 어떻게 추리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혼돈을 야기하는 것으로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누가 진리를 탐구한 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욥 21:14)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기란 힘든 일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비통한 표현의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 23:37-38)

오늘날 이 말씀은 애써 주님께 나아와서 변론하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21-2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1974년을 맞이하면서

선교부장 엘-에드워드 브라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지도 벌써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한국 성도들에게 임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가족기도와 가정의 밤을 이끄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남편을 만들고 자지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훌륭한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힘과 신권을 통해 오는 축복의 힘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가족중심의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활동이 이처럼 증가된 것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는 교리와 성약 20편 47절의 말씀대로 신권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족에 관심을 갖고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교성 20 : 53)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책임은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교리의 성약 128편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두번째의 주요한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신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주께서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 우리의 회원 가운데는 엘리야의 영을 받아들여 그들의 선조가 침례와 신권 사업의 축복을 받게 되도록 계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성도가 모두 이러한 책임에 눈을 뜰 때입니다.

1974년의 세번째 목표는 복음에 관해서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교리와 성약 88편 81~83절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고 다른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에 응해 굳건히 나섭시다.

이것이 우리가 1974년을 맞이하면서 이루어야 할 주요한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째, 효과적인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둘째, 적극적으로 계보 연구에 임하며 셋째, 보다 열성적으로 비회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교부장단으로서 1974년도에는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사랑, 겸손, 순종심을 갖고 그를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